



▲ 정읍지부 사무실 앞. 좌측부터 정정웅 총무, 엄경섭 기사, 김동일 지부장, 박영숙 간사. 현재 제7대 김동일 지부장을 주축으로 모든 회원들과 박영숙 간사는 단결하여 각종 사업과 행사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정읍지역 양돈산업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액비유통센터 운영으로 분뇨처리에 도움 주는 전북 정읍지부

취재 : 정재은

전북 정읍지부(김동일 지부장, 만54세)는 요즘 양돈농가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분뇨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액비유통센터를 건립하여 경종농가와 액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친환경 축산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회원들 역시 해양투기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분뇨를 처리해 나가고 있다.

또한 약품 공동구매 사업 추진으로 회원

들이 각종 약품을 원가에 구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정읍지부는 매년 가을에 투돈대회나 가축품평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전축산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양돈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다. 또한 돼지고기 무료 시식회를 개최함으로써 돼지고기의 영양학적 가치와 안전성 및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부위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정읍지부는 정읍시 축산진흥과(김택영 과장, 이재하 축산관리계장)로부터 톱밥과 발효제 구입비 보조를 받고 있으며,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 전북 정읍지부 김동일 지부장.

액비유통센터 운영으로 분뇨문제 해결 위한 노력

정읍지부는 양돈농가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분뇨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액비탱크 231기(200톤짜리 액비통 231개)와 분뇨운반차 5톤짜리 2대, 액비살포기 7대를 마련해 놓고 액비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회원의 절반 가량인 40농가 정도가 참여하여 분뇨를 액비화하고 있으며, 경종농가와 액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분뇨문제를 처리해 나가고 있다.

한편 돈분을 저장시켜 부숙시킨 액비는

냄새도 거의 나지 않고 독성이 없어 유기질 비료로 이용되어 친환경 축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액비유통센터 위원은 김동일 지부장을 주축으로 과수분야 1명, 수도작 분야 2명, 전작 분야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급량과 단가 등을 결정하기 위해 협의해 나가고 있다. 회원들은 분뇨운반 및 액비살포까지 포함하여 톤당 6,000원의 비용으로 해양투기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분뇨처리를 해나가고 있다.

한편 김동일 지부장은 “2005년까지는 액비탱크 256기 설치를 계획중이며, 양돈협회 소유의 액비탱크 40~50기 추가설치가 가능하도록 행정을 통해 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 말했다.

탄탄하고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정읍지부

정읍지부는 공동체 의식 아래 양돈인들의 소득 및 지위향상을 위해 1988년 12월 6일 창립되었다. 현재 제7대 김동일 지부장을 주축으로 모든 회원들과 박영숙 간사는 단결하여 각종 사업과 행사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정읍지



▲ 정읍지부에서는 매월, 매일 빠짐없이 양돈시세 현황을 정리하고 회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 2002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개최된 투돈대회는 시민들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쳤다. 또한 정읍지부는 매년 정읍시와 육가공회사의 보조로 무료시식회를 함께 전개하고 있다. 돈가스, 동그랑땡, 즉훈제육 등의 가공제품 시식회를 통하여 돼지고기 수출부위 영양학적 가치와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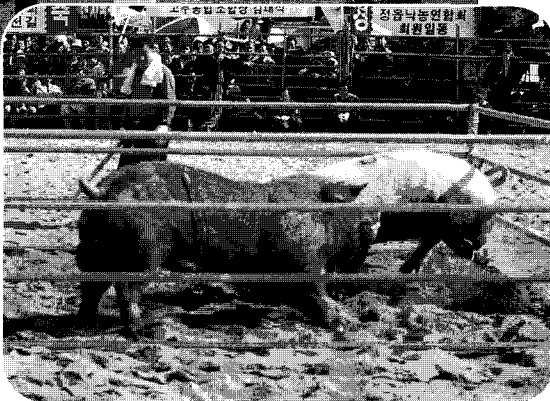
역 양돈산업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정읍에서는 186개의 양돈농가가 20만7천두를 사육하고 있다. 정읍지부는 86농

가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정읍지역 전체 사육두수의 70% 수준인 15만두를 사육하고 있다. 회원농가는 대부분 전업규모이며, 평균 사육두수는 1,500두 정도 된다.

임원은 김동일 지부장, 김수곤·오정섭 부지부장, 우찬명·박만희 감사, 이종섭·김무술·김성녕·이근배·강희종 이사, 정정용 총무(만36세)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과 지부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한편 정읍지부는 2003년 9월부터 월 2만원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해진 예산 내에서 투명하고 건실하게 지부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투돈대회 및 가축품평회, 무료시식회 등 다양한 행사 전개

정읍지부는 전축산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양돈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투돈대회 및 가축품평회, 무료

시식회 등의 다양한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2002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개최된 투돈대회는 시민들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쳤다.

2003년 10월 2일 신태인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 가축품평회에서는 한우, 낙농, 양돈, 양계 각 분야에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을 선발하였다. 정읍지역 축산농가의 가축개량을 통해 고능력 종축 사육기반 조성과 지역브랜드화 정착의 기회가 되었다. 한편 족구와 줄다리기, 노래자랑의 순서를 마련하여 축산인들의 단합을 유도하고 즐거운 오락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정읍지부는 매년 정읍시와 육가공회

사의 보조로 무료시식회를 함께 전개하고 있다. 돈가스, 동그랑땡, 족혼제육 등의 가공제품 시식회를 통하여 돼지고기 수출부위 영양학적 가치와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참여한 시민들에게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돼지고기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약품 공동구매 사업과 시와 연계한 톱밥·발효제 보조사업으로 이익제공

정읍지부는 동물약품 공동구매 사업으로 회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대량으로 백신 및 일반 약품을 구매하여 회원들이 원가에 구입할 수 있도록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읍지부는 정읍시와 연계하여 톱밥과 발효제 구입비 보조를 받고 있다. 정읍시 100%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연 3,800만원의 보조가 이루어지고, 정읍시 50% 지원과 자부담 50%인 사업은 연 6,000만원의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동일 지부장은 “정읍시의 협조 아래 톱밥 및 환경개선제 구입비 보조사업으로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철저한 소독과 방역활동으로 청정 유지

정읍지부 회원들 개개인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정읍시로부터 6,000여만원의 소독약을 구입하여 공동방제용으로 농가에 배포하고 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정읍시와 축협이 공동으로 1주일에 2번씩 소독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역활동으로 정읍 지역은 구



▲ 정읍지부 김동일 지부장(좌측)과 정정용 총무.



▲ 지부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보좌하면서 정읍지부를 알뜰하게 꾸려나가고 있는 박영숙 간사.

제역이나 돼지콜레라 발생이 전혀 없었던 청정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김동일 지부장은 “각종 사료 운반차나 출하차 등으로 인해 질병이 전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도별로 생산부터 출하, 사료 공급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월례회의 및 세미나 개최와 관련기관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정보교환

정읍지부는 매월 월례회의를 빠짐없이 개최한다. 축산분야 정책방향과 현안문제에 대한



▲ 정읍지부는 매월 월례회의를 빠짐없이 개최한다. 회원들의 성적 향상과 컨설팅을 위해 사양 및 질병, 돈분처리, 경영 관련 세미나를 함께 개최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내용 전달을 해주고 있으며, 회원들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 회원들의 성적 향상과 컨설팅을 위해 사양 및 질병, 돈분처리, 경영 관련 세미나를 함께 개최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정읍지부는 관련기관과의 유대관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다. 김동일 지부장은 “각 축산생산자단체 대표들의 모임인 정읍축산연합회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월 1번 개최되는 회의를 통해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화된 저돈가 시기 극복을 위해 연동제 실시되어야

김동일 지부장은 “전국시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서울시세를 적용할 경우 A등급에서 C등급까지의 규격돈 평균가격으로 발표한다면 상황이 조금 나아지리라 생각한다.”며, “저돈가 시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적절한 극복방법은 연동제 실시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정용 총무는 “연동제 실시가 이루어진다면 산지가격이 하락시 소비자가격도 하락하면서 소비량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돼지가격은 다시 상승하게 될 것이고 소비량은 줄어들게 된다.”면서 “자연스럽게 수요공급 물량이 조절되고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면서 수입도 많지 않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부장은 “자조금 사업이 시행되면 TV광고도 적극적으로 해야겠지만 수출부위를 이용한 요리개발, 가공품 수출 추진 등이 이루어질길 바란다.”며, “무료시식회나 불우이웃에 돼지고기 보내기 행사도 꾸준히 추진되어 양돈산업 이미지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능성 돼지고기 브랜드식품 사업 추진

김동일 지부장은 소성 동문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로 자가 배합사료를 이용한 기능성 돼지고기 생산을 시험 사육중이다.

김 지부장은 “유황과 발효사료를 이용하고 있어 육질 및 사료효율과 환경개선은 물론, 항암작용과 강장식품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급률도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돼지고기 브랜드제품 생산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으며, 내년 초쯤에 브랜드 개발을 확정하여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양돈**